

세대교류형 주거의 교류유형별 공간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Spatial Planning Characteristics of Intergenerational Housing by Interaction Type

Focusing on Cases in Japan

주 저 자 : 이하연 (Lee, Ha Yeon) 조선대학교 디자인학 박사

공 동 저 자 : 문정민 (Moon, Jeong Min) 조선대학교 실내디자인전공 교수

교 신 저 자 : 박수경 (Park, Su Kyoung) 조선대학교 실내디자인전공 겸임교수
sk7815@hanmail.net

<https://doi.org/10.46248/kidrs.2026.3.756>

접수일 2026. 08. 20. / 심사완료일 2026. 08. 24. / 게재확정일 2026. 09. 07. / 게재일 2026. 09. 30.

본 논문은 2026학년도 조선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 되었습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patial planning characteristics of intergenerational housing according to interaction types. Three cases in Japan were analyzed through field surveys and interviews, focusing on spatial configuration, arrangement, circulation,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results show that planned interaction creates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through the connection of program spaces with everyday activities; incidental interaction promotes unintentional encounters through overlapping circulation and daily activities; active interaction supports residents' choice and self-determination through flexible spaces and spatial separation; and indirect interaction enables continuous awareness of other generations through visual and auditory connections and traces of activities. The findings suggest that intergenerational housing should consider the relationships among spatial configuration, arrangement, circulation,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ccording to different interaction types.

Keyword

세대교류형 주거(Intergenerational Housing), 세대교류(Intergenerational Interaction), 교류유형(Interaction Types), 공유공간(Shared Space), 공간계획(Spatial Planning), 환경적 조건(Environmental Conditions)

요약

본 연구는 일본의 세대교류형 주거 사례를 대상으로 교류유형별 공간계획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세대교류를 기획적·우연적·능동적·간접 교류로 구분하고, 일본의 3개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각 교류유형이 나타나는 공유공간을 공간구성, 배치 및 동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사회적 유인·관찰성·집중성·고립·편익성의 환경적 조건과의 관계를 종합하였다. 분석 결과, 기획적 교류는 프로그램 공간과 일상생활 및 이동체계의 연계를 통해 참여기회를 형성하였으며, 우연적 교류는 생활동선과 필수활동의 교차·중첩을 통해 비의도적 접촉기회를 형성하였다. 능동적 교류는 다목적·가변적 공간과 주거·공유영역의 분리를 통해 교류 참여의 선택과 자기 결정을 지원하였으며, 간접 교류는 시청각적 연결과 활동 흔적을 통해 다른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인지를 지원하였다. 또한 동일한 공유공간에서도 공간구성, 배치 및 동선에 따라 다양한 교류유형이 중첩되는 다면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세대교류형 주거의 공유공간 계획에서 개별 공간요소보다 교류의 발생방식에 따른 공간 간 관계와 환경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이론적 배경

- 2-1. 세대교류 주거의 개념 및 특성
- 2-2. 세대교류 유형 및 특성
- 2-3. 세대교류형 주거의 공간계획 관점

2-4. 세대교류형 주거의 환경적 조건

2-5. 분석틀의 구성

3. 사례분석

- 3-1. 사례 선정 및 분석 대상
- 3-2. 교류유형별 공간계획 특성 분석
- 3-3. 소결

4.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세대 간 접촉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를 감소시키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세대가 일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세대 간 이해 부족과 갈등,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¹⁾ 주거공간은 다양한 세대가 일상생활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되는 생활 환경으로, 세대 간 교류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적 기반이 된다. 세대교류형 주거는 서로 다른 연령층이 동일한 생활권 안에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주거환경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고립 완화, 일상적 돌봄체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적 주거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세대교류는 프로그램이나 행사와 같이 의도적으로 계획된 활동뿐 아니라 일상적인 이동 과정에서의 우연한 마주침, 거주자의 자발적인 참여, 직접적인 접촉 없이 서로의 존재와 활동을 인지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주거환경에서는 출입구, 복도, 계단 및 보행로와 같이 반복적인 생활행위와 이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서로 다른 세대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매개할 수 있으며, 공유공간의 시각적·청각적 연결은 직접적인 대면 없이도 다른 세대의 존재와 활동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세대교류형 주거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교류의 발생방식에 따라 어떠한 공간계획이 요구되며 이러한 공간계획이 어떠한 환경적 조건을 형성하여 세대 간 교류를 지원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복지시설, 교육시설 및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세대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공간계획 방안이 제시되어 왔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기획적·우발적·자발적·간접 교류와 같은 교류유형을 공간 및 프로그램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교류유형은 주로 교류가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행태적 분류로 활용되어 왔으며, 각 교류유형이 공간구성, 배치 및 동선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이러한 공간계획이 어떠한 환경적 조건을 형성하여 교류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동일한 공유공간이라 하더라도 공간의 기능과 배치관계, 이용자의 이동방식 및 시·청각적 연결에 따라

서로 다른 교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교류유형을 공간계획적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세대교류형 주거 사례를 대상으로 교류가 나타나는 공유공간을 파악하고, 이를 공간구성, 배치계획 및 동선계획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각 교류유형을 지원하는 환경적 조건과 공간계획적 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행태적 교류유형을 공간계획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교류유형별 공간계획 특성을 규명하여 향후 세대교류형 주거의 공유공간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일본의 세대교류형 주거를 대상으로 교류유형별 공간계획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세대교류형 주거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고 세대교류 유형을 재정리하였다. 또한 공동주택의 공간계획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간구성, 배치계획 및 동선계획을 공간계획적 분석관점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공간계획이 세대 간 접촉과 상호작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용이성(Social Facilitation) 개념을 환경적 조건의 분석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사례분석 대상은 일본의 세대교류형 주거 중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거주하며 세대교류를 위한 공유공간을 계획·운영하고 있고, 공간구성과 운영현황에 대한 현장조사가 가능한 세 사례를 선정하였다. 사례별 현장조사와 담당자 인터뷰, 도면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각 교류유형이 나타나는 공유공간을 파악하고, 공간구성·배치·동선의 측면에서 공간계획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후 각 공간계획이 사회적 유인·관찰성·집중성·고립·편의성의 환경적 조건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해석하고, 사례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하여 교류유형별 공간계획 특성을 도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세대교류 주거의 개념 및 특성

세대교류형 주거는 노인을 중심으로 청년, 육아세대 등 서로 다른 생애주기의 거주자가 함께 생활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세대 간 접촉과 상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된 주거환경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서로 다른 세대가 하나의 주거환경에 공존하는 것을 넘어 개인생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공동공간을 매

1) 한국리서치, '2025 세대인식조사: 세대갈등 및 다른 세대에 대한 인식', (2026.8.13.) hrcopinion.co.kr/archives/32460

개로 세대 간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적·사회적 환경을 포함한다. 이러한 세대 간 접촉과 교류는 상호지원과 돌봄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사회적·정서적 웰빙 증진과 공동체적 관계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²⁾

그러나 서로 다른 세대 간에는 신체적 특성, 생활패턴 및 심리적 거리감 등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다양한 세대를 물리적으로 혼합하는 것만으로 자연스러운 접촉과 교류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Kaplan et al.(2020)은 세대 간 접촉공간(Intergenerational Contact Zone)을 물리적·시간적·심리적 차원에서 설명하며, 서로 다른 세대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적 기반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³⁾ 따라서 세대 교류형 주거에서는 거주자의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세대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적 기회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유공간은 세대교류가 형성되는 주요한 공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세대교류형 주거의 공유공간은 거주자의 다양한 일상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서로 다른 세대가 이동하고 체류하거나 공동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하고 서로의 존재와 활동을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커뮤니티공간뿐만 아니라 출입구, 복도, 계단, 보행로 등 일상적인 이동 및 전이공간을 포함하며, 계획된 교류에서 일상적인 마주침과 간접적인 인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세대교류를 매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대교류형 주거의 공유공간을 중심으로 세대 간 교류가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하며, 서로 다른 교류행태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계획적 특성이 어떠한 환경적 조건을 형성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2. 세대교류 유형

세대교류 관련 공간 연구를 검토한 결과, 교류유형은 박혜선(2008)이 재구성한 유형체계를 기초로 후속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항·조벽호(2012)는 기존의 교류유형을 세대교류 활

성화 계획에 적용하였으며⁴⁾, 양소영 외(2019)는 기획 교류를 이벤트성·활동성·지원성으로, 자주적 교류를 접근성·연계성으로 구체화하여 공간배치 및 프로그램 분석에 활용하였다.⁵⁾ 염의돈 외(2020)는 기획·우발·자발·간접 교류를 병렬적인 분석단위로 설정하고, 각 유형의 발생 특성을 선택/강제, 이동/지점, 필요/친화, 계획/비계획으로 세분화하였다.⁶⁾ 이처럼 박혜선(2008)의 기본 유형체계는 후속 공간연구에서 연구목적에 따라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재구성하여 활용되어 왔다.

박혜선(2008)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세대교류는 접촉방식과 교류의 발생방식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접촉방식에 따라 직접교류와 간접 교류로 구분된다. 직접교류는 서로 대면하여 상호작용하는 유형으로, 운영자의 계획과 프로그램에 의해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기획적 교류, 일상생활에서 동선의 중첩이나 우연한 마주침을 통해 발생하는 우발적 교류,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와 능동적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자발적 교류로 구분된다. 반면, 간접 교류는 직접적인 대면 없이도 시각적·청각적 접촉을 통해 서로의 존재와 활동을 인지하는 교류를 의미한다.⁷⁾

본 연구에서는 각 교류유형의 발생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기존의 '우발적 교류'와 '자발적 교류'를 각각 '우연적 교류'와 '능동적 교류'로 재정의하였다. 기존의 교류유형이 주로 교류가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하는가를 설명하는 행태적 분류라면, 본 연구는 이를 공간계획적 관점에서 각 교류유형이 어떠한 공유공간에서 나타나며, 공간적으로 어떠한 계획적 특성과 환경적 조건에 의해 지원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4) 이재항·조벽호, '고령사회에 대응한 도시형 코하우징 내 세대교류 활성화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 7, No.3, 통권 21호, 2012, pp.32-33.

5) 양소영·조성우·문정민, '세대교류 증진을 위한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배치 및 프로그램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 14, No.8, 통권, 57호, 2019, p.300;

6) 염의돈·류라·김용성, '친밀감 증대를 위한 세대교류형 주거 내의 교류활성화 프로그램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5, No.7, 통권 68호, 2020, p.206.

7) 박혜선, '노인복합시설 세대간 교류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19.

2) 이하연, '세대교류형 주거 내 공유영역의 공간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6, p.25.

3) Kaplan, M., Thang, L. L., Sánchez, M. & Hoffman, J. (Eds.), 『Intergenerational Contact Zones: Place-Based Strategies for Promoting Social Inclusion and Belonging』, Routledge, 2020, pp.3-4.

[표 1] 세대교류 유형

구분	행태적 발생 특성
직접 교류	운영자의 계획과 프로그램에 의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형성되는 의도적 교류
	우연적 일상생활 중 자연스러운 마주침을 통한 교류
	능동적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와 참여를 통한 교류
간접 교류	직접적인 대면 없이 시각적·청각적 인지를 통한 교류

2-3. 세대교류형 주거의 공간계획 관점

앞서 살펴본 세대교류 유형은 세대 간 접촉방식과 교류의 발생방식에 따른 행태적 특성을 설명한다. 그러나 동일한 교류유형이라도 공간의 구성과 기능, 공간 간의 배치관계 및 이용자의 이동방식에 따라 세대 간 접촉과 상호작용의 기회는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세대교류형 주거의 공간계획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각 교류유형이 어떠한 공간계획적 특성에 의해 지원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은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공간적 관계를 다루며, 기존 건축계획에서는 이를 배치계획, 동선계획, 주거동 계획 및 단위주호 계획 등의 차원에서 구분하고 있다.⁸⁾ 본 연구는 세대 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유공간의 계획적 특성에 초점을 두므로, 기존의 건축계획 체계를 연구목적에 맞게 공간구성, 배치계획, 동선계획의 세 가지 관점으로 재구성하였다.

첫째, 공간구성은 일정한 영역 내에서 목적과 기능에 맞게 공간을 계획하는 것으로, 배치 및 동선계획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세대교류형 주거에서는 공유공간의 유형과 기능 및 성격을 구성하고, 이용자의 활동과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및 장치를 계획하는 측면을 포함한다.

둘째, 배치계획은 공간구성에 따라 각 공간과 기능의 위치 및 상호관계를 설정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세대교류형 주거에서는 주거공간과 공유공간, 서로 다른 기능의 공유공간 및 내·외부 공간 간의 인접·집중·분리·연계 등의 공간적 관계를 형성하는 계획적 측면을 포함한다.

셋째, 동선계획은 이용자가 단지와 공유공간에 접근하고 진입하며 이동하는 경로와 공간 간 연결관계를 계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교류형 주거에서는 서로 다른 세대의 일상생활 동선과 공유공간으로의 접근 및

진입, 공간 간 이동과 연결 등의 관계를 형성하는 계획적 측면을 포함한다.

[표 2] 세대교류형 주거의 공간계획 관점

구분	내용
공간구성	공유공간의 유형·기능 및 공간적 장치의 구성
배치계획	공간 위치·인접·연계 관계
동선계획	공유공간으로의 접근·진입 및 공간 간 이동·연결 체계

이상의 공간구성, 배치 및 동선계획은 세대교류형 주거의 공유공간을 물리적 계획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한 관점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공간계획이라도 이용자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방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물리적 계획특성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형성되는 환경적 조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공간 환경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특성을 중심으로 세대교류를 위한 환경적 조건을 고찰한다.

2-4. 세대교류형 주거의 환경적 조건

Festinger et al.(1950)은 물리적 근접성이 접촉 기회를 증가시키며, 반복적인 접촉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⁹⁾ 이러한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 환경적 조건으로, 이는 이용자의 행위와 접촉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의 특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대교류형 주거에서는 공간의 배치 방식, 동선 구조, 시각적 개방성 등 다양한 공간 계획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대 간 접촉 기회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적 조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Murtha & Lee가 제시한 사용자 이득 기준(User Benefit Criteria) 중 사회적 용이성(Social Facilitation)을 분석틀로 적용하였다.¹⁰⁾

사회적 용이성은 공간 환경이 이용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적절한 수준에서 지원하는 특성을 의미하며, 교류를 촉진하는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적 특성을 포함한다.¹¹⁾ 사회적 용이성은 사회적 유인(Social

8) 대한건축학회, 『공동주택디자인』, 대한건축학회, 2010, pp.128-193.

9) Festinger, L., Schachter, S. & Back, K., 『Social Pressures in Informal Groups: A Study of Human Factors in Housing』, Harper & Brothers, pp.155-156, 1950.

10) 이연숙, 『실내환경심리행태론』,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pp.96-107.

Initiation), 사회적 관찰성(Social Observability), 사회적 집중성(Social Convergence),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사회적 편익성(Social Accommodation)의 다섯 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유인은 이용자의 체류와 활동을 유도하는 환경적 특성을 의미하며, 사회적 관찰성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더라도 타인의 존재와 활동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이다. 사회적 집중성은 사람과 활동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도록 공간과 기능을 집약하는 특성이며, 사회적 고립은 필요에 따라 사회적 접촉을 조절하고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사회적 편익성은 이용자의 활동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공간적 특성을 의미한다.

[표 3] 사회적 용이성의 유형 (이연숙, 1998)

구분	내용
사회적 유인	환경이 거주자의 사회적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사회적 관찰성	다른 사람의 활동과 공간 이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사회적 집중성	거주자가 자연스럽게 모이고 교류할 수 있도록 공간과 기능을 집약하고 있는가
사회적 고립	필요 시 사회적 접촉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사회적 편익성	공간의 환경적 요소가 사회적 교류와 의사소통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2-5. 분석틀의 구성

이상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대교류의 행태적 유형, 공간계획적 특성 및 환경적 조건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림 1]과 같이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먼저 계획적·우연적·능동적·간접 교류를 행태적 분석단위로 설정하고, 공유공간을 대상으로 공간구성, 배치계획 및 동선계획의 측면에서 공간계획적 특성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공간계획적 특성이 사회적 유인, 사회적 관찰성, 사회적 집중성, 사회적 고립 및 사회적 편익성의 환경적 조건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세대교류를 지원하는지를 해석한다. 이를 종합하여 교류유형별 공간계획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유공간의 영역은 교류 및 공간계획 특성이 나타나는 공간적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보조적 기준으로 활용한다.

① 세대교류의 행태적 유형

계획적 · 우연적 · 능동적 · 간접

▼ (유형별 공간계획 분석)

② 공간계획적 분석 관점

공간구성 · 배치계획 · 동선계획

▼ (환경적 조건과의 관계 해석)

③ 세대교류를 지원하는 환경적 조건

사회적 유인 · 사회적 관찰성 · 사회적 집중성 · 사회적 고립 · 편익성

▼ (분석 결과 종합)

④ 교류유형별 공간계획 특성 도출

[그림 1] 교류유형별 공간계획 특성 분석틀

3. 사례분석

3-1. 사례 선정 및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일본의 세대교류형 주거 사례 중 서로 다른 세대의 거주를 기반으로 세대 간 교류를 지원하는 공유공간이 계획·운영되고 있으며, 공간구성과 이용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가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또한 주거형태에 따른 공간계획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셰어하우스형, 단지형 및 복합형의 세 가지 유형에서 각각 사례를 선정하였다. 각 사례는 거주구성 및 주거형태에는 차이가 있으나, 서로 다른 세대가 일상생활에서 공유공간을 이용하고 세대 간 접촉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교류유형별 공간계획 특성을 비교·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사례분석은 현장조사, 담당자 인터뷰 및 관련 자료 조사를 통해 수행하였다. 현장조사에서는 공유공간의 구성 및 공간 간 배치관계, 출입구 및 주요 이동동선, 교류를 지원하는 공간적 장치 등을 조사하였으며, 도면과 현장사진을 통해 이를 기록하였다.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서도 공유공간의 운영방식,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 및 실제 이용행태와 세대 간 교류가 나타나는 공간과 상황 등을 확인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계획적·우연적·능동적·간접 교류가 나타나는 공간과 행태를 파악하고, 각 교류유형을 공간구성, 배치계획 및 동선계획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후 이러한 공간계획적 특성이 사회적 유인, 사회적 관찰성, 사회적 집중성, 사회적 고립 및 사회적 편익성의 환경적 조건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해석하여 교류유형별 공간계획 특성을 도출하였다.

11) 이하연, Op. cit., 2026, p.47.

[표 4] 사례 대상지 개요

사례명	위치	유형	세대수	조성연도
사례 C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복합형	99	2015
사례 O	도쿄도 메구로시	쉐어하우스형	16	2017
사례 W	도쿄도 조후시	단지형	237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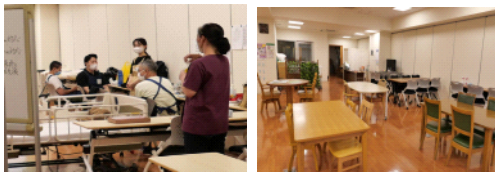


[그림 2] 사례 C [그림 3] 사례 O [그림 4] 사례 W

3-2. 교류유형별 공간계획 특성 분석

3-2-1. 기획적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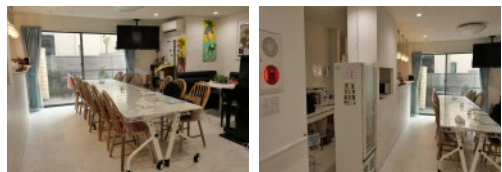
사례 C는 지역교류공간과 공동거실을 중심으로 이벳, 교육 및 놀이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고령자 전용 공동식당에서도 보육원과 공동 식사가 운영되어 고령자의 일상생활 공간이 세대 간 기획적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공간구성 측면에서 지역교류공간과 공동거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레일백과 이동식 가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규모와 방식에 따라 공간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자판기 등의 편의장치는 프로그램 전후의 체류를 지원한다. 배치계획 측면에서는 지역 교류공간과 공동거실이 출입구와 인접하여 배치되어 프로그램 공간에 대한 인지와 접근이 용이하다. 동선계획 측면에서는 거주자의 일상적인 출입동선이 공유공간과 연계되어 있어 프로그램 공간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공간계획적 특성은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교류공간으로 사람과 활동을 모으는 사회적 유인, 다양한 활동과 체류를 지원하는 사회적 편의성이라는 환경적 조건을 형성한다.



[그림 5] 지역교류공간 [그림 6] 공동거실 레일백

사례 O는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고령자 중심의 상시 프로그램과 일상 이벤트, 정기적인

세대교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고령자가 아동의 식사와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등 프로그램을 매개로 세대 간 역할에 기반한 상호지원 관계가 형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공간구성 측면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공동주방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능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프로그램 활동과 식사와 같은 일상적 활동이 동일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진다. 배치계획 측면에서는 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주방이 인접하고 주요 공유공간이 1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고령자가 거주하는 건물을 중심으로 공유공간이 배치되어 청년과 아동이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관계를 형성한다. 동선계획 측면에서는 커뮤니티 공간이 출입구와 인접하고 거주자의 일상적인 출입동선과 연계되어 있어 공유공간에 대한 접근과 프로그램 참여가 일상적인 이동 과정과 연결되는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공간계획적 특성은 프로그램과 공유공간에 대한 접근 및 참여를 지원하는 사회적 유인과 이용자 및 활동을 하나의 생활거점으로 모이게 하는 사회적 집중성이라는 환경적 조건을 형성한다. 특히 프로그램 공간을 별도의 독립된 영역으로 분리하기보다 공동주방과 같은 일상생활 기능과 인접시키고, 공유공간을 1층의 주요 출입동선 및 고령자 거주영역을 중심으로 집중 배치함으로써 일상생활과 기획된 교류활동이 공간적으로 연계되는 특성을 보인다.



[그림 7] 커뮤니티 공간 [그림 8] 공동주방

사례 W는 서비스형 고령자주택 1층의 츠나구 카페 올리브와 마치 라이브러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츠나구 카페 올리브는 입주자의 일상적인 식사공간이면서 지역주민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마치 라이브러리에서는 서도 클럽, 그림 모임, 계절별 이벤트 등 다양한 소규모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그랜드 홀은 이동을 위한 전이공간이면서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중앙의 모두의 광장에서는 두 건물의 거주자가 함께 정원을 가꾸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또한 단지 앞 외부공간에서의 공동 대피훈련과 인근 중·고등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획적 교류의 범위가 단지 내

부에서 외부로 확장되고 있다.

공간구성 측면에서는 식사, 독서, 소규모 모임, 이벤트 및 공동활동 등 서로 다른 성격과 규모의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랜드 홀과 같이 이동과 프로그램 운영의 기능을 함께 수용하는 다목적 공간이 나타난다. 또한 벽면 전시와 게시판은 프로그램 및 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테이블과 의자 등의 편의장치는 프로그램 참여와 체류를 지원한다. 배치계획 측면에서는 츠나구 카페 올리브, 마치 라이브러리, 그랜드 홀 및 모두의 광장이 서로 인접·연계되어 실내외의 다양한 교류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주요 교류공간이 고령자주택의 출입구 및 그랜드 홀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일상적인 이동과 프로그램 공간 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동선계획 측면에서는 두 건물의 주요 이동동선이 그랜드 홀과 연결·교차하며, 거주자가 일상적인 이동 과정에서 교류공간과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공간계획적 특성은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접근 및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적 유인, 사람과 활동이 주요 공유공간으로 모이도록 하는 사회적 집중성, 프로그램과 타인의 활동을 인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관찰성, 활동과 체류를 지원하는 사회적 편의성이라는 환경적 조건을 형성한다.



[그림 9] 마치 라이브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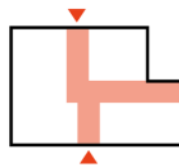
[그림 10] 모두의 광장

[표 5] 기획적 교류의 공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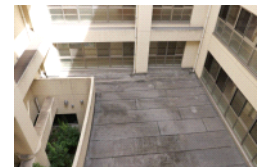
구분	공간구성	배치 및 동선	환경적 조건
사례 C	• 지역교류공간과 공동거실, 공동식당 • 레일벽, 이동 가능한 가구, 자판기	• 교류공간의 출입구 인접 배치	• 사회적 유인 • 사회적 편의성
사례 O	• 커뮤니티 공간, 공동주방	• 1층 공유공간 집중 배치, 출입구 인접	• 사회적 유인 • 사회적 집중성
사례 W	• 츠나구 올리브 카페, 마치 라이브러리, 그랜드 홀, 모두의 광장 • 게시판, 벽면 전시, 테이블과 의자	• 주요 동선과 교류공간 연계 • 그랜드 홀 중심 동선 교차	• 사회적 유인 • 사회적 관찰성 • 사회적 집중성 • 사회적 편의성

3-2-2. 유연적 교류

사례 C는 출입구와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일상적인 이동 및 전이공간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공간구성 측면에서는 세 개의 출입구 전면에 형성된 전이공간과 넓은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이 이동뿐 아니라 일시적인 체류를 수용하며, 주거층의 우편함과 물품보관함, 지역교류공간 입구의 자판기, 복도의 의자와 외부공간의 벤치 등은 이동 과정에서 짧은 체류를 지원한다. 배치계획 측면에서는 지역교류공간, 공동거실, 학원 및 생활편의시설이 1층 출입구와 인접 배치되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이용자가 주요 공유공간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관계를 형성한다. 동선계획 측면에서는 홀·코어형 십자 동선과 □자형 순환동선을 통해 서로 다른 세대의 이동경로가 반복적으로 교차하며, 주거층의 중정형 복도는 이동 과정에서 맞은편 공간과 이용자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공간계획적 특성은 서로 다른 이용자의 이동경로와 활동을 중첩시키는 사회적 집중성, 이동 과정에서 타인의 존재와 활동을 인지하게 하는 사회적 관찰성, 짧은 체류와 접촉을 지원하는 사회적 편의성이라는 환경적 조건을 형성한다.



[그림 11] 십자 동선



[그림 12] □자 순환 동선

사례 O는 소규모 공유주거의 특성상 일상적인 이동과 필수생활 활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공간구성 측면에서는 공동 화장실, 세탁실, 개방형 주방 및 우편함 등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기능이 공유공간에 구성되어 있으며, 현관 벤치 등의 체류장치는 이동 과정에서 짧은 머무름을 지원한다. 배치계획 측면에서는 주거동이 서로 인접하고 필수생활 기능과 공유공간이 생활동선과 밀접하게 배치되어 이용자의 활동이 일정한 공간에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형성한다. 동선계획 측면에서는 단일 출입구와 홀·코어형 수직동선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다른 세대의 이동경로가 반복적으로 중첩된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과 테라스 사이의 전면 유리, 외부로 개방된 계단 및 발코니 간의 수직적 시각 연결은 이동 과정에서 다른 거주자의 존재와 활동을 인지할 수 있

도록 한다. 이러한 공간계획적 특성은 일상생활에서 이용자의 이동과 활동을 반복적으로 중첩시키는 사회적 집중성, 서로의 존재와 활동을 자연스럽게 인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관찰성, 이동 과정에서의 짧은 체류를 지원하는 사회적 편의성이라는 환경적 조건을 형성한다.



[그림 13] 단일 출입구



[그림 14] 현관 벤치

사례 W는 츠나구 카페 올리브, 그랜드 홀, 복도 및 모두의 테라스 등 일상적인 이동과 체류가 중첩되는 공유공간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공간구성 측면에서는 츠나구 카페 올리브가 식사, 독서, 아동 활동 등 서로 다른 목적의 활동을 함께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이용자가 동일한 공간을 공유하며, 그랜드 홀과 복도의 휴게공간은 이동과 체류를 함께 수용하는 전이공간으로 기능한다. 또한 벤치와 테이블의 자 등의 체류장치는 이동 과정에서 짧은 머무름을 지원한다. 배치계획 측면에서는 츠나구 카페 올리브와 마치 라이브러리가 서비스형 고령자주택 출입구 전면에 집중 배치되고, 모두의 광장 및 그랜드 홀과 연계되어 주요 공유공간 간의 공간적 연결성을 형성한다. 동선계획 측면에서는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의 출입구가 단지의 주출입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령자주택과 분양맨션 거주자의 주요 이동경로가 그랜드 홀에서 반복적으로 교차한다. 또한 전면 유리로 개방된 교류공간은 이동 중에도 내부의 활동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공간계획적 특성은 다양한 목적의 이용자와 활동을 주요 공유공간으로 모으는 사회적 집중성, 이동 과정에서 다른 세대의 활동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관찰성, 이동공간에서의 짧은 체류를 지원하는 사회적 편의성이라는 환경적 조건을 형성한다.



[그림 15] 그랜드 홀



[그림 16] 전면 유리로 개방된 교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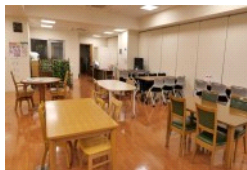
[표 6] 우연적 교류의 공간 특성

구분	공간구성	배치 및 동선	환경적 조건
사례 C	•출입구 전면 전이공간, 중정형 복도, 엘리베이터 홀 •우편함, 자판기, 벤치	•출입구 인접 배치 •십자 동선, □자 순환동선	•사회적 집중성 •사회적 편의성 •사회적 관찰성
사례 O	•전이공간, 공동 화장실, 세탁실 •전면 유리, 개방형 계단, 우편함, 벤치	•단일 출입구, 홀 코어형 수직동선 •동 간 인접배치	•사회적 집중성 •사회적 편의성 •사회적 관찰성
사례 W	•그랜드 홀, 복도, 휴게공간, 모두의 테라스 •전면 유리, 벤치, 테이블	•주요 동선과 교류공간 연계 •그랜드 홀 중심 동선 교차	•사회적 집중성 •사회적 편의성 •사회적 관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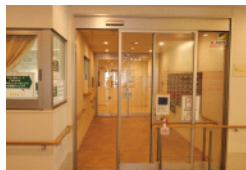
3-2-3. 능동적 교류

사례 C는 지역교류공간과 공동거실을 중심으로 거주자가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활동과 교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공간구성 측면에서는 공동 거실과 지역교류공간이 특정 활동에 한정되지 않고 소규모 모임부터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동성 가구와 가변형 레일 벽을 통해 활동의 규모와 목적에 따라 공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공동거실의 전면 유리는 내부의 활동을 외부에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거주자가 활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배치계획 측면에서는 공유공간과 주거공간을 층별로 분리하여 공동활동 영역과 개인생활 영역 사이에 공간적 거리를 확보하고 있다. 동선계획 측면에서는 각 교류공간을 중심으로 출입구가 세 방향으로 분리되어 있어 거주자가 교류공간의 이용 여부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공간계획적 특성은 다양한 활동과 자발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유인과 사회적 편의성, 참여 이전에 다른 이용자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관찰성, 개인생활과 공동활동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고립이라는

환경적 조건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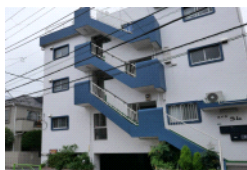


[그림 17] 공동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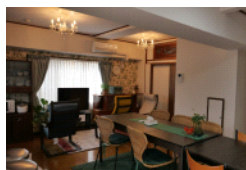


[그림 18] 주거동 출입구

사례 O는 소규모 공유주거의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거주자가 필요와 선호에 따라 공간과 활동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공간구성 측면에서는 커뮤니티 공간이 가정집과 유사한 규모와 분위기의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되어 특정 프로그램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일상활동을 수용하며, 가라오케 등 거주자가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활동도 이루어진다. 배치계획 측면에서는 주거공간과 공유공간을 동과 층으로 구분하여 공동활동 영역과 개인생활 영역 사이에 공간적 분리를 확보하고 있다. 동선계획 측면에서는 외부계단과 독립된 출입구를 통해 공유공간을 반드시 경유하지 않고도 주거공간으로 접근할 수 있어 거주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교류공간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공간계획적 특성은 다양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유인과 개인생활 및 공동활동 사이의 접촉 정도를 조절하는 사회적 고립이라는 환경적 조건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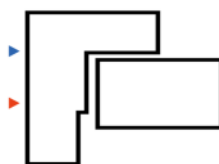
[그림 19] C동 외부계단



[그림 20] C동 커뮤니티공간

사례 W는 모두의 테라스와 모두의 광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유공간을 중심으로 거주자가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공간구성 측면에서는 모두의 테라스와 모두의 광장이 특정 기능에 한정되지 않고 휴식, 모임 및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레스토랑의 가변형 레일벽은 활동의 규모와 목적에 따라 공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배치계획 측면에서는

지역에 개방된 츠나구 카페 올리브와 주거영역이 구분되어 외부인의 이용영역과 거주자의 생활영역 사이에 적절한 공간적 경계를 형성한다. 동선계획 측면에서는 츠나구 카페 올리브와 주거동의 출입체계를 분리하여 거주자가 지역개방형 교류공간을 반드시 경유하지 않고도 주거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계획적 특성은 다양한 활동과 이용방식을 수용하는 사회적 유인과 외부 이용자와 거주자의 생활영역 사이의 접촉을 조절하는 사회적 고립이라는 환경적 조건을 형성한다.



[그림 21] 출입구 분리



[그림 22] 레일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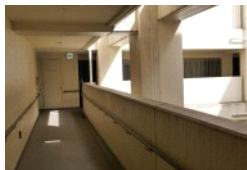
[표 7] 능동적 교류의 공간 특성

구분	공간구성	배치 및 동선	환경적 조건
사례 C	• 지역교류공간과 공동거실, 공동식당 • 레일벽, 이동 가능한 가구, 자판기	• 일체적층형 배치 • 분리된 출입구	• 사회적 유인 • 사회적 관찰성 • 사회적 고립 • 사회적 편의성
사례 O	• 커뮤니티 공간, 공동주방	• 일체적층형 배치 • 분리된 출입구	• 사회적 유인 • 사회적 고립
사례 W	• 츠나구 올리브 카페, 마치 라이브러리, 모두의 광장 · 테라스 • 레일벽	• 카페와 주거동 출입구 분리	• 사회적 유인 • 사회적 고립

3-2-4. 간접 교류

사례 C는 주거층의 중정형 복도와 공동거실을 중심으로 다른 세대의 일상과 활동을 시·청각적으로 인지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공간구성 측면에서는 공동거실의 전면 유리를 통해 외부 보육시설의 활동과 아동의 모습을 내부에서도 인지할 수 있으며, 지역교류공간의 작품 전시와 정보 게시판,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의 미술작품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프로그램의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로 기능한다. 배치계획 측면에서는 주거층의 복도가 중정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도록 계획되어 동일 층뿐 아니라 서로 다른 층의 고령자와 일반세대가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일상적인 이동과 활동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각적 관계를 형성한다. 동

선계획 측면에서는 이러한 시각적 연결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복도와 엘리베이터 홀 등 생활동선상에서 형성되어 별도의 교류행위 없이 이동 과정에서 다른 세대의 존재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공간계획적 특성은 직접적인 상호작용 없이도 다른 세대의 존재와 활동 및 교류정보를 인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관찰성이라는 환경적 조건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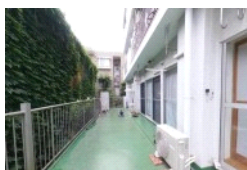


[그림 23] 중정형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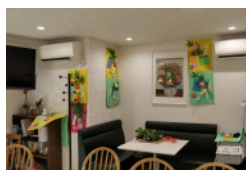


[그림 24] 공동주택 전면 유리

사례 O는 공유공간과 주거공간 사이의 시각적 연결을 통해 다른 세대의 일상생활과 활동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공간구성 측면에서는 커뮤니티 공간과 테라스 사이의 전면 유리를 통해 양측의 활동을 서로 인지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공간의 작품 전시와 개인실 문 앞의 장식걸이대는 거주자의 활동 결과와 개인적 특성을 드러내는 매개로 기능한다. 배치계획 측면에서는 고정자와 육아세대가 이용하는 공유 발코니가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다른 층의 생활과 활동이 시각적으로 연계되는 관계를 형성한다. 동선계획 측면에서는 외부로 개방된 계단을 통해 층간 이동 과정에서도 다른 세대의 이동과 활동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계획적 특성은 직접적인 대면 없이 다른 거주자의 존재와 활동 및 생활의 흔적을 인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관찰성이라는 환경적 조건을 형성한다.



[그림 25] 공유 발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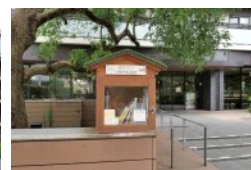
[그림 26] 작품 전시

사례 W는 모두의 광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정형 공간구조와 전면 유리로 개방된 공유공간을 통해 다른 세대의 활동을 사·청각적으로 인지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공간구성 측면에서는 그랜드 홀, 다목적 교류공

간 및 클리닉의 전면 유리가 모두의 테라스를 향해 개방되어 내·외부의 활동을 서로 인지할 수 있으며, 주거동 앞의 무인 공유서가와 단위주호 문 옆의 장식박스는 이용의 흔적과 개인의 취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매개로 기능한다. 배치계획 측면에서는 모두의 광장을 사이에 두고 서비스형 고정자주택의 베란다와 분양주택의 복도가 서로 마주보도록 계획되어 각 건물에서의 일상적인 활동이 시각적으로 연결되는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분양주택의 야외 키즈공간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공유공간으로 전달되어 시각뿐 아니라 청각을 통한 인지도 가능하다. 동선계획 측면에서는 그랜드 홀과 복도 등 일상적인 이동공간이 모두의 광장과 테라스를 향해 개방되어 이동 과정에서도 다른 세대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공간계획적 특성은 직접적인 대면 없이 다른 세대의 존재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인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관찰성이라는 환경적 조건을 형성한다. 특히 사례 W는 서로 다른 주거영역과 공유공간을 사·청각적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공유서가와 장식박스 등 이용자의 흔적을 노출하는 장치를 통해 현재 이루어지는 활동뿐 아니라 다른 세대의 생활과 이용 흔적까지 인지할 수 있다.



[그림 27] 중정형 구조



[그림 28] 무인공유서가

[표 8] 간접 교류의 공간 특성

구분	공간구성	배치 및 동선	환경적 조건
사례 C	• 중정형 복도, 전면 유리, 작품 전시, 정보 게시판, 미술작품	• 중정형 배치	• 사회적 관찰성
사례 O	• 전면 유리, 공유 발코니, 개방형 계단, 작품 전시, 장식걸이대	• 발코니 수직 연결, 외부 개방형 계단	• 사회적 관찰성
사례 W	• 전면 유리, 주거동 앞의 무인 공유서가, 단위주호 문 옆의 장식박스	• 중정형 배치	• 사회적 관찰성

3-3. 소결

분석 결과, 동일한 교류유형에서도 사례별 공간구성과 배치 및 동선의 구체적인 계획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각 교류유형을 지원하는 공간적 관계와 환경적 조건에서는 일정한 공통적 특성이 나타났다.

첫째, 기획적 교류는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공간의 구성과 함께 해당 공간을 일상생활 기능 및 주요 이동 체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사례에 따라 프로그램 전용공간, 다목적 공간, 카페, 공동주방 및 외부공간 등 구체적인 공간유형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프로그램 공간을 출입구 및 주요 공유공간과 인접·집중시키고 일상동선과 연계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과 참여를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가변형 장치, 이동식 가구, 게시판 및 체류시설 등은 다양한 활동의 운영과 이용자의 체류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공간계획적 특성은 주로 사회적 유인, 사회적 집중성, 사회적 편익성이라는 환경적 조건을 형성하며, 계획된 교류에 대한 참여기회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연적 교류는 별도의 교류활동을 계획하기보다 일상적인 이동과 필수생활 활동이 공유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중첩되는 공간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출입구, 복도, 홀, 계단 등의 전이공간과 공동주방, 세탁실, 우편함 등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생활공간을 주요 동선과 연계하고, 서로 다른 세대의 이동경로가 교차·중첩되도록 계획함으로써 비의도적인 마주침의 가능성을 형성하였다. 또한 시각적으로 개방된 공간구조와 벤치 등의 체류장치는 이동 중 다른 세대의 존재를 인지하거나 짧은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사회적 집중성, 사회적 관찰성 및 사회적 편익성이라는 환경적 조건을 형성하며, 일상생활 과정에서 비의도적인 접촉기회를 반복적으로 형성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셋째, 능동적 교류는 거주자가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교류 참여 여부와 활동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계획과 관련되었다. 다목적 공간과 가변형 장치는 다양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용하고 이용방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거공간과 공유공간의 분리, 독립적인 출입구 및 선택 가능한 이동경로는 개인 생활과 공동활동 사이의 접촉 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적 유인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환경적 조건을 형성하며, 교류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참여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주자의 선택과 자기결정에 기반한 교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넷째, 간접 교류는 직접적인 대면이나 활동 없이 다른

세대의 존재와 활동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적 연결방식과 관련되었다. 중정형 공간구조, 전면 유리, 마루보는 복도와 발코니, 개방형 계단 등은 서로 다른 세대의 일상생활을 시·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품 전시, 게시판, 공유서가 및 개인 장식 등은 이용자의 활동과 생활의 흔적을 공간에 드러내는 매개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공간계획적 특성은 사회적 관찰성이라는 환경적 조건을 형성하며, 직접적인 상호작용 없이도 다른 세대의 존재와 생활을 지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세대교류형 주거의 공간계획은 교류를 위한 특정 공간이나 시설을 제공하는 것보다 교류의 발생방식에 따라 공간구성, 배치 및 동선을 서로 다르게 관계화함으로써 교류를 지원하는 특성을 보였다. 기획적 교류에서는 계획된 활동에 대한 참여기회, 우연적 교류에서는 일상생활 속 접촉기회, 능동적 교류에서는 교류에 대한 선택과 자기결정, 간접 교류에서는 다른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인지가 각각 중요한 공간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공유공간과 공간요소가 하나의 교류유형에만 대응하기보다 공간의 기능, 배치 관계, 동선 및 이용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교류를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특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세대교류를 지원하는 공간계획은 개별 공간요소의 도입 여부보다 공간과 기능의 관계, 이용자의 이동 및 접촉 방식, 참여와 비참여의 선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표 9] 사례 종합

교류유형		환경적 조건				
		사회적 유인	사회적 관찰성	사회적 집중성	사회적 고립	사회적 편익성
직접 교류	기획적	●	-	○	-	○
	우연적	-	○	●	-	○
	능동적	●	-	-	●	-
간접 교류		-	●	-	-	-

● : 핵심 조건, ○ : 보조 조건

4. 결론

본 연구는 일본의 세대교류형 주거 사례를 대상으로 기획적·우연적·능동적·간접 교류가 어떠한 공간계획적 특성과 환경적 조건에 의해 지원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류유형별 공간계획 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주거유형의 세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고, 각 교

류유형이 나타나는 공유공간을 공간구성·배치계획·동선계획의 관점에서 분석한 후, 사회적 유인·관찰성·집중성·고립·편익성의 환경적 조건과의 관계를 종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기획적 교류는 계획된 활동에 대한 참여기회를 형성하는 공간계획적 특성을 보였다. 사례별로 프로그램 전용공간, 다목적 공간, 카페, 공동주방 및 외부공간 등 구체적인 공간구성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공간을 주요 출입구 및 일상생활 기능과 인접·집중시키고 거주자의 생활동선과 연계한다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또한 가변형 장치와 이동식 가구는 다양한 규모와 방식의 활동을 수용하고, 게시판과 전시 및 체류시설은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와 이용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공간계획은 사회적 유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집중성과 사회적 편익성이 복합적으로 형성되며, 프로그램 공간을 일상생활과 공간적으로 연계하여 계획된 교류에 대한 접근과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연적 교류는 일상생활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세대의 이동과 활동을 중첩시켜 비의도적인 접촉기회를 형성하는 공간계획적 특성을 보였다. 출입구, 복도, 홀 및 계단 등의 전이공간과 공동주방, 세탁실, 우편함 등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생활기능을 주요 동선과 연계하고, 서로 다른 세대의 이동경로가 교차·중첩되도록 하는 배치 및 동선계획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각적으로 개방된 공간구조는 이동 중 다른 세대의 활동을 인지하도록 하고, 벤치와 같은 체류장치는 이동과 접촉 사이의 짧은 머무름을 지원하였다. 이는 사회적 집중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찰성과 사회적 편익성이 함께 형성되며, 별도의 교류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반복적인 일상활동 자체를 세대 간 접촉의 기회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셋째, 능동적 교류는 교류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거주자가 참여 여부와 활동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계획적 특성을 보였다. 다목적 공간과 가변형 장치는 이용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용하도록 하였으며, 주거영역과 공유영역의 분리, 독립된 출입구 및 선택 가능한 접근 동선은 공동활동과 개인생활 사이의 접촉 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적 유인과 사회적 고립이 함께 작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교류유형과 차이를 보였다. 즉, 능동적 교류는 교류를 촉진하는 것만이 아니라 비참여 가능성과 프라이버시를 함께 확보함으로써 교류 참여에 대한 거주자의 선택과 자기결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넷째, 간접 교류는 직접적인 상호작용 없이도 다른 세대의 존재와 생활을 지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계획적 특성을 보였다. 중정형 공간구조, 전면 유리, 마주보는 복도와 발코니 및 개방형 계단은 서로 다른 세대의 일상활동을 사·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품 전시, 게시판, 공유서가 및 개인 장식 등은 이용자의 활동과 생활의 흔적을 공간에 드러내는 매개로 작용하였다. 이는 사회적 관찰성과 밀접하게 관계하며, 간접 교류가 타인의 활동을 시각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활동에 대한 동시적 인지와 공간에 남겨진 활동·생활 흔적에 대한 비동시적 인지를 통해 다른 세대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기획적 교류에서는 계획된 활동에 대한 참여기회의 형성, 우연적 교류에서는 일상생활 과정에서의 비의도적 접촉기회의 형성, 능동적 교류에서는 교류 참여에 대한 선택과 자기결정의 지원, 간접 교류에서는 다른 세대에 대한 지속적 상호인지의 지원이 각각 주요한 공간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공유공간이나 공간요소라 하더라도 교류의 발생방식에 따라 그 공간적 역할과 환경적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유공간은 하나의 교류유형이나 단일한 환경적 조건에 대응하기보다, 공간의 기능과 배치관계, 이용자의 이동방식 및 사·청각적 연결에 따라 여러 교류유형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다면적 특성을 보였다. 예를 들어 일상동선과 연계된 공유공간은 계획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동시에 우연한 접촉의 기회를 형성할 수 있으며, 시각적으로 개방된 공간은 간접적인 인지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이용자가 다른 세대의 활동을 확인한 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세대교류를 지원하는 공간계획에서는 개별적인 교류요소의 도입보다 공간구성·배치·동선과 환경적 조건 간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수준의 참여·접촉·선택·인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교류의 발생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어 온 세대교류 유형을 공간계획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각 교류유형을 공간구성·배치·동선과 환경적 조건 간의 관계를 통해 분석하였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세대교류를 지원하는 공간계획을 개별 공간요소의 유무가 아니라 참여기회의 형성, 비의도적 접촉기회의 형성, 선택과 자기결정의 지원 및 지속적 상호인지의 지원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적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교류형 주거의 공유공간을 계획할 때 계획된 참여에서 우연한 접촉, 자

울적 참여 및 간접적 인지에 이르는 다양한 수준의 관계 형성을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는 일본의 세 사례를 대상으로 한 탐색적 다중 사례분석이라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주거유형을 대상으로 사례를 확대하고, 실제 거주자의 행동관찰 및 이용자 평가 등을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교류유형별 공간적 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대한건축학회, 『공동주택디자인』, 대한건축학회, 2010.
- 이연숙, 『실내환경심리행태론』,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 양소영·조성우·문정민, '세대교류 증진을 위한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배치 및 프로그램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 14, No.8, 통권 57호, 2019.
- 염의돈·류라·김용성, '친밀감 증대를 위한 세대교류형 주거 내의 교류활성화 프로그램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5, No.7, 통권 68호, 2020.
- 이재향·조벽호, '고령사회에 대응한 도시형 코하우징 내 세대교류 활성화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 7, No.3, 통권 21호, 2012.
- 박혜선, '노인복합시설 세대간 교류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8.
- 이하연, '세대교류형 주거 내 공유영역의 공간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2026.
- Festinger, L., Schachter, S. & Back, K., 『Social Pressures in Informal Groups: A Study of Human Factors in Housing』, Harper & Brothers, 1950.
- Kaplan, M., Thang, L. L., Sánchez, M. & Hoffman, J. (Eds.), 『Intergenerational Contact Zones: Place-Based Strategies for Promoting Social Inclusion and Belonging』, Routledge, 2020.
- hrcopinion.co.kr